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4년 4월 13일(주일) 제9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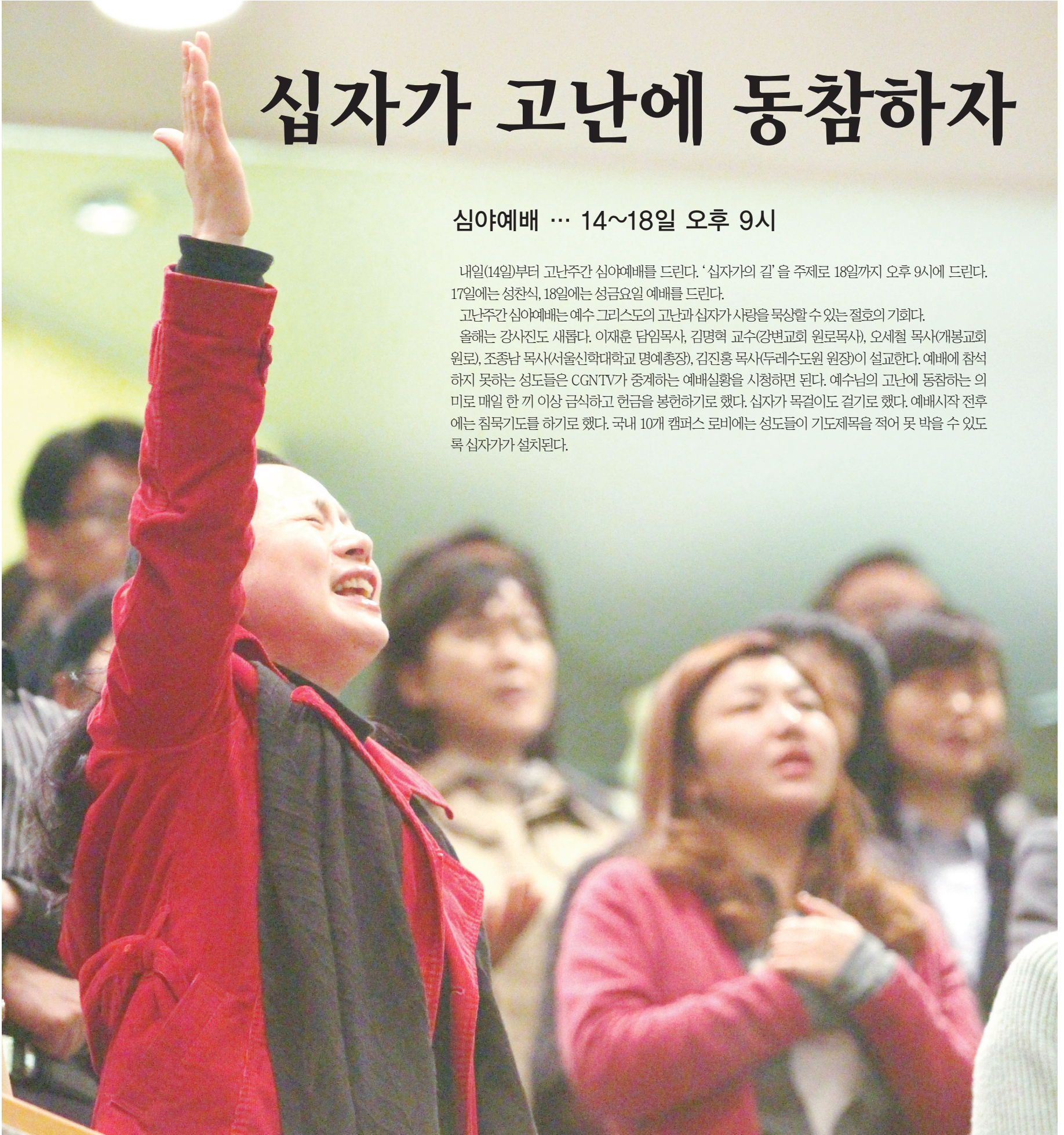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자

심야예배 ... 14~18일 오후 9시

내일(14일)부터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린다. '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18일까지 오후 9시에 드린다. 17일에는 성찬식, 18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린다.

고난주간 심야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올해는 강사진도 새롭다. 이재훈 담임목사, 김명혁 교수(강변교회 원로목사), 오세철 목사(개봉교회 원로), 조종남 목사(서울신학대학교 명예총장),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원장)이 설교한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CGNTV가 중계하는 예배실황을 시청하면 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매일 한 끼 이상 금식하고 헌금을 봉헌하기로 했다. 십자가 목걸이도 걸기로 했다. 예배시작 전후에는 침묵기도를 하기로 했다.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에는 성도들이 기도제목을 적어 못 박을 수 있도록 십자가가 설치된다.



뉴스_교회생활, 주차질서부터

» 2면

▷서빙고 365일 일방통
행 진출입 방식 도입
▷양재, 외부 주차장 이
용하고, 셔틀타기 권장



특집_교회용어 바로 쓰기

» 4-5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교회용어
▷알기 쉬운 우리말
쓰자



문화_인물

» 8면

▷일본교회에 용기
주려고 6년 동안 일
본어성경 필사한최정
순권사



가정사역_헬로맘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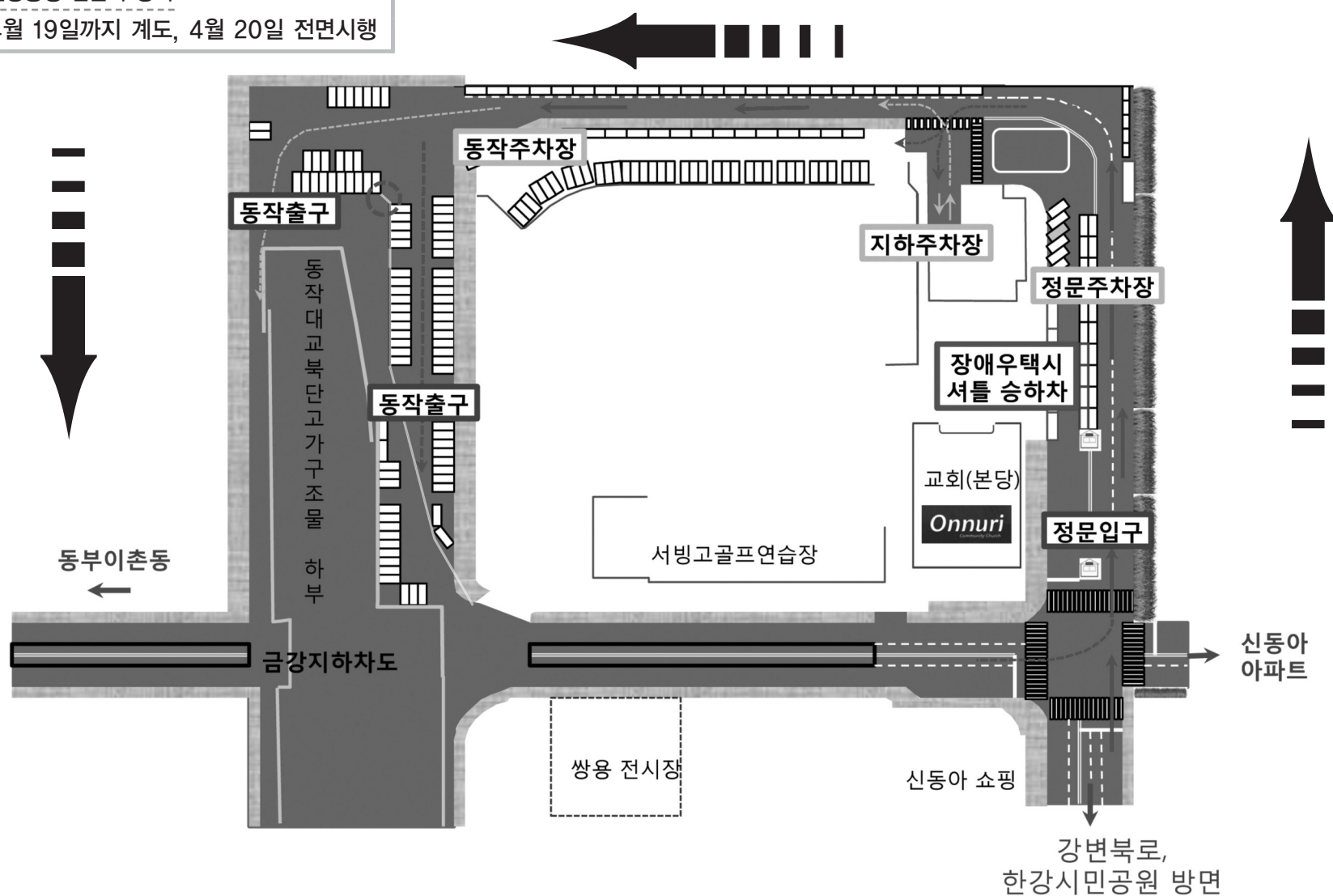
» 9면

▷성경적 태교와
양육법 배운다
▷임산부 스쿨과
출산 후스쿨 운영



일방통행 입출차 방식

4월 19일까지 계도, 4월 20일 전면시행



교회생활 주차질서부터

서빙고, 365일 일방통행 입출차 방식 도입 양재, 외부 주차장 이용하고 셔틀이용

온누리교회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서빙고는 새로운 입출차 방식을 도입하고 양재는 셔틀이용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4월 20일부터 '365일 일방통행 입출차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365일 일방통행 입출차 방식은 교회 입차는 정문,

출차는 동작대교 주차장 방향으로만 순환하는 것이다. 365일 일방통행 입출차 방식이 도입되면 교회에 오고 나가는 차량 흐름이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매주일 어김없이 발생하던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면서 교회와 주민간의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방식도 변경된다. 매주일 가장 혼잡한 시간대(1~3부예배)에 우선주차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주차제도는 교통약자들(장애인, 임산부, 70세 이상 성도 등)을 위한 배려다. 앞으로는 우선주차증을 소지한 성도만 교회내에 주차할 수 있다.

일반성도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앞으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올 때에는 용산역 아이파크몰 3층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오면 된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

안으로 외부주차장을 이용하고 셔틀을 타고 교회에 오는 방법을 제안했다.

양재 온누리교회 인근 주민들도 매주일 교회로 몰려드는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양재 온누리교회에 주차가능 대수는 약 700대 정도인데 주일이면 두배 이상의 차량이 교회로 진출입하면서 교통혼잡이 심각하다.

양재는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주차장이 많다. 일동제약 주차장, 양재시민의 숲, 양재구립주차장, 양재역 환승주차장이 있다. 주차장 앞에서 교회로 오는 셔틀이 운행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Interview _ 365일 일방통행 입출차 방식 도입 앞두고

365일 일방통행 입출차 방식 도입을 앞두고 서빙고 주차팀(김영한 장로, 이홍찬 집사, 김주영 총무)원들을 만났다. 365일 일방통행 방식을 도입한 배경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었다. 서빙고주차팀원들은 성도들에게 적극적 참여와 정착될 때까지 다소 불편하더라도 성숙하게 인내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다음은 서빙고 주차팀원들과의 일문일답.

일방통행 입출차 방식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

가능대수가 400대인데, 주일 2·3부예배에 700~1000대가 교회에 옵니다. 불법주차,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주차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통행 입출차 방식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과 공동체가 솔선수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출차는 동작대교 주차장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드리고 나면 곧장 차를 빼줘야 합니다.”

주차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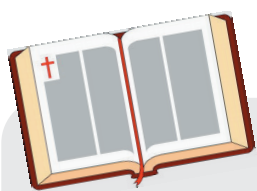
“50명의 주차위원들이 봉사하고 있는데 새로운 입출차 방식이 도입되면 2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해요. 주차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히 공동체에서 주차봉사를 적극 권장해줬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주차위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주차방식이 도입되면 혼란과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정착될 때까지 다소 불편해도 인내해주시요”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향유를 붓는 사랑

눅 7:36~50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옥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 목사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줄 모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한 여인

바리새인 시몬은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여인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과 감격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있던 여인은 죄를 용서받는 감격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 구원의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저녁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에 응하셨고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갑자기 식사자리에 들어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줄 알았다면 그 여인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한 이유

“이 여인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 한 것뿐이다”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저녁식사에 초대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의도 갖

추지 않았습니.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제공했는데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붓는 예절도 갖추지 않았습니. 다. 예수님이 이러한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식사에도 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초청한 식사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겉으로 환영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환영하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는 식사 자리에 누가 앉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리새인 시몬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초청해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의 트집 잡을 구실을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셔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결과 속이 다른 시몬의 행동

초대받지 않은 여인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나 선지자였다면 그 여인의 행동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미리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의심, 정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심과 비판, 심지어 정죄까지 하고 있

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과 친한 척 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고, 진정한 신앙고백 없이 겉으로만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경배와 예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의 모습과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섬김의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밑바탕이 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열정적이고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능력이 부족해진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없는 봉사는 다른 사람 앞에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공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배는 감정만 있는 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 하셨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베드로의 실패보다 사랑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알려져 있고, 스스로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한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할 사람입니다. 여인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여인은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을 내어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은 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의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여인은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고귀한 가치를 주신 예수님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머리카락을 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카락을 푸는 행동을 정숙하지 않은 행동으로 봅니다.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40절).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라면 이 여인의 행동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질문하셨습니다.

〈13면에 계속〉

교회용어 바로쓰자

알기 쉽고, 정확하게 듣는

“커피 나오셨습니다. 그 상품은 없으십니다”

지난 주 뉴스에 보도된 사례다. 손님에 대한 친절이 지나쳐서 물건까지 높이는 경우를 꼬집었다. 잘못된 용어 사용 사례는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설교 말씀이 계시겠습니까”는 말은 예배에 대한 높임이 지나쳐서 대상을 혼동하는 것이다. 과도한 서비스 정신으로 “치즈 두장 올라가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물을 높이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용어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을 지칭한다. 통용되는 용어 중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많다. 용어의 잘못된 사용은 잘못된 개념이나 사고를 형성하기 쉽다. 의미가 변질될 위험도 있다. 올바른 용어 사용 그래서 중요하다.

/ 조은실, 정현주, 박익새 기자

복
성
의
일
을
하
는
것
이
다

지난해 말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를 변경했다. 성전, 은퇴장로, 성가대가 바로 그것이다. 성전은 본당 또는 예배당으로, 은퇴장로를 사역장로로, 성가대는 찬양사역팀으로 변경했다. 용어를 바꾼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의미가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성전을 살펴보자. 성전은 구약시대 성막을, 즉 가시적인 공간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고전3:17)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

이 성전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은퇴장로를 사역장로로 변경한 이유도 있다. 은퇴장로는 행정과 사무에서는 은퇴했지만 장로로서의 사역과 헌신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은퇴라는 단어보다 사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로 했다.

성가대를 찬양사역팀으로 변경한 이유도 의미가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가대(聖歌隊)는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 찬양은 하나님만 기리는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팀을 성가대로 지칭하기보다 찬양사역팀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이외에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용어가 많다. 가령

순예배도 순모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배에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순모임은 나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순예배보다 순모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금요철야예배도 그렇다. 어느 교인이 서빙고 금요철야예배를 드리기 위해 밤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예배가 자정에 끝났다. 물론 이후에 더 기도할 수 있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철야예배보다 심야예배로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하다.

다음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용어들을 정리했다.

바로잡아야 할 교회 용어

성전(X) / 본당 또는 예배당(O)

성전은 구약시대에 가시적인 공간을 지칭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부른다.

우리 몸이 성전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교회만을 국한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순예배(X) / 순모임(O)

예배에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순모임이 더 정확하다. 순모임은 나눔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통성기도(X) / 합심기도(O)

‘통성’이라는 조어에는 애매성이 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나라’(행 1:14)에 근거를 둔 것이기에 ‘합심’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기도 드렸습니다(X) / 기도합니다(O)

기도는 언제나 현재시제여야 한다. 과거시제로 기도를 마감하는 말은 옳지 않다.

기도 받는다(X) / 기도 의뢰, 부탁(O)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기도받는다’는 표현은 무속적인 잔재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시정되어야 한다.

기독교를(교회) 믿는다(X)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O)

종교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독교나 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X) 큰 믿음, 확고한 믿음(O)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좋고 나쁘다’라고 꾸밀 수 없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유무로 표현하거나 강약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송축하라(X) / 송축하자(O)

어법상 자기가 자기를 명령할 수 없다. 스스로를 독려하는 심정적 동기라면 ‘-하자’가 옳다.

게실씨어다(X) / 있을씨어다(O)

복이 회중에게 ‘게실 일’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할 복이 ‘있을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전받았다(X)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O)

호전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신앙이나 영적 상황에 도입하기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성경 저자(X) / 성경 기록자(O)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 기록하게 하신 책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다.

알기 쉬운 우리말 씹시다!

온누리교회에 다닌 지 3년째인 자매가 있다. 그녀는 교회에 처음 나올 때와 다르게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말을 받았다. 신앙과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기 위해 각종 집회를 쫓아 다녔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베이직을 깨달았다.

이 글을 읽으면 필요 이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능하면 우리말을 쓰자. 어렵지 않아야 이해하기 쉽다.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수용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례 1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 B군. 공동체에서 ODO를 간다는 광고를 들었다.

B는 순장한테 “ODO가 뭐예요?”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당일 봉사활동이라고 썼으면 어땠을까.

#사례 2

신입간사 A형제는 교회 행사 준비를 하는데 TFT팀에 배정되었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 TFT가 뭐지? TFT는 행사를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투입되는 스태프를 의미한다. 대기 스태프, 보조 스태프라고 표현했으면 혼선이 없었을 것이다.

#사례 3

딸의 제안으로 온누리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D집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단어들 때문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액티브하게, 포커스를 맞추세요, 성경의 베이직, 이 시추에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등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영어로 말하니가 알아들을 수 없어 답답했다. 때로는 이질감도 느꼈다.

가능하면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쉽고 알기 쉬운 설교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을까.

사람이 주체가 되도록

너겨
 밍그노니
 겨날로부메便
 르미니라
 니라
 내이를爲_爲하야어엿
 새로스물여_爲字_字를
 사롬마다히여수빙니
 뻔
 安_安한
 키하고저홍사

나랏말싸미 中國
文 字 宗 瓦 礫 石 土
도록
북 姓 성 이 니 르 고
못 디 아 니 할 씨
궤 에 달 아

성경봉독(X) / 성경낭독(O)

봉독(奉讀)이라는 말은 설교 본문 제시행위를 종교 의식화한 인상이 있다. 성경낭독으로 순화해 읽는 것이 좋겠다.

종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장례 용어

사례비, 봉급(X) / 목회비, 성역비(O)

목회자의 급여는 고마움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비정규적인 '사례'의 뜻으로는 부적절하다. '보수'나 '봉급'도 대가성을 가진 응분의 보상 개념이 있는 말이다. 목회비나 성역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명복을 빕니다(X)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O)

‘명복(冥福)’은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행복’이라는 뜻이다.

미망인(X) / 유가족(O)

‘미망인’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다. 유교적 관점의 용어이다.

안식일(X) / 주일(주의 날) (O)

구약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일’로 바꿔쓰는 것이 옳다.

삼우제(X) / 장례 후 첫 성묘(O)

유족들이 장례를 마친 후 3일 만에 성묘를 하는 관행인데, 삼우제는 유교적 관례에 관한 용어이다. 장례 후 첫 성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도발(x) / 성령의역사, 기도의 능력(o)

‘-발’이라는 말은 어떤 효험의 징후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다. 성령의 역사나 기도의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김석한 저<교회용어 바로쓰기>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요약, 참고 했습니다.

불신자와 비신자의 비교

불신자는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물론 기독교인이더라도 확신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 비신자는

온누리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순 - 작은 썩,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모임으로 온누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꿈을 이루는 기초단위.

사역 -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

양육 - 영적으로 출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지속적인 믿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교육체계.

세례 - 죄를 씻는 행위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간증 - 자신의 과거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증언하는 일.

송구영신예배 - 묵은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지난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 맞는 한 해의 새벽미명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Q.T -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묵상의 시간.



 목회칼럼 김영진 목사(예배사역본부장)

진정한 찬양의 의미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의 시작은 대부분 찬양으로 시작한다. 인도자가 찬양하자는 말을 하게 되면 모인 사람들은 찬송가를 펴거나 가사를 찾게 된다. 노래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많은 크리스천의 생각 속에 찬양은 곧 노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노래는 다양한 찬양의 방법 중 한 가지일뿐 전부는 아니다. 찬양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찬양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가? 이러한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 찬양의 의미도 모른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찬양의 의미 중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말이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찬양은 기도의 내용이 담긴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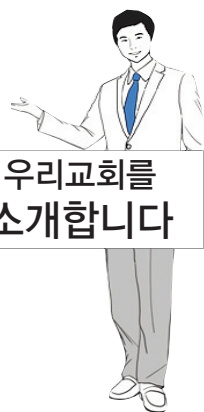
래리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하기? 찬양이 노래로 하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정의는 전혀 다르다. 성경은 찬양이 무엇인지 구체적이며 다양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시편의 마지막 편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시 150:6). 이 구절에서 찬양이라는 명령의 원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의 뜻은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풀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라는 것이다. 또 시편 148편 13절을 보면 찬양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시 148:13). 이 구절에서도 ‘찬양하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이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위대하시고 영광이 크신 이름이다. 그래서 찬양은 위대하시고 크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인 것이다. 음악으로, 글로, 미술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용
해야 한다. 예배나 모임을 가질 때 찬양을 한다
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곡인지를 먼

저 살펴보아야 한다. 부르려고 하는 노래가 찬양의 내용이 담긴 곡이라면 그 곡은 찬양곡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담긴 곡이라면 기도곡인 것이다. 예배로 모인다면 찬양과 예배의 내용이 담긴 곡을 선포하고 기도회로 모인다면 간구의 내용이 담긴 곡을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찬양의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 성경에는 손을 들고, 손뼉 치며, 악기를 연주하며, 즐거운 소리로 등하 나눴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방법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삶 속에서 진정한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안개가 뿌옇게 낀 지난 수요일(9일),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찾았다. 서울에서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다.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리더십들의 단체사진이 눈에 띈다. 송구영신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찍은 사진과 여러 콘셉트로 찍은 사진들이 재미있다. 올해는 성도들을 잘 섬기겠다는 의미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촬영을 했다. 사진마다 의미 있는 스토리가 있었다.

여기는 3층 예배당. 수요일여성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번 달은 아가서 강해가 진행 중이다. 예배를 드리고 남양주 온누리교회 담당 백상욱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다. 메뉴는 비빔밥이었다.

“비빔밥 소스에 성도가 가지고 온 머루즙이 들어있어요” 한 끼 식사에도 성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백 목사와 성도들의 교제가 이어졌다. 생일을 맞은 성도를 축하해주고, 전도담과 전도지를 함께 접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주방을 섬기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기자가 식당에서 만나 성도들에게 물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족 같이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더 섬기고, 더 나누는 교회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가족 같은 분위기는 순에서 비롯됐다. 순에서 맺어진 끈끈한 유대관계가 다락방과 공동체로 이어진 것이다. 1,1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지만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2003년 구리·남



백상욱 목사와 남양주 수요일여성예배 찬양팀원들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양주 공동체로 시작했다. 한 성도의 사무실에서 열린 새벽기도모임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면서 2004년 11월 7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66번지 진성빌딩 2-3층에 약 80명의 성도들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기훈, 안광복, 이기진 목사가 시무했고, 현재는 백상욱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주민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배, 다문화가정사역, 북한선교사역 등이 이를 웅변해준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배에는 인도와 네팔에서 온 성도 3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

다문화가정사역은 결혼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요리수업,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한글 학교, 미술교실, 탁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선교사역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매주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탈북민을 위한 수련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탈북민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우리들 학교’에 반찬봉사를 나가고 있고, 지난 주일(6일)에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삼겹살 파티도 열었다.

올해 11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창립 10주년인 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지역사회를 더 섬기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더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사진 여준원 기자

축복합니다·사랑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 ✓ 늘 함께 하는 행복한 교회 / 정인숙 권사
- ✓ 다문화 성도들을 잘 챙겨주시는 따뜻한 권사님이 있는 곳 / 친령링
- ✓ 마음이 편해지는 교회 / 단티투호영
- ✓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 신지연 집사
- ✓ 성령 충만한 교회 / 김선희 집사
- ✓ 서로 배려하고 품고 기도해주는 사랑이 많은 교회 / 정월자 권사
- ✓ 목사님이 친구 같은 교회 / 김경숙 권사
- ✓ 가족적인 분위기, 따뜻한 교회 / 조영숙 집사
- ✓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 임현태 장로
- ✓ 다같이 함께하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 / 석재연 집사
- ✓ 목사님이 너무 좋은 교회 / 박영숙 집사



목회칼럼

백상욱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이 되어 가난한 구두쟁이 집에서 얹혀살던 천사 미하일을 통해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하나씩 일화를 통해 풀어낸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사람의 내면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알아낸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흑과 백을 분리시키고,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며,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다. 청년이 되면서 그런 분별력을 바탕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진리를 사

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처럼 여기며 살아가다. 더 나이를 먹어 이가 하나 둘 빠지면 서, 입 속에 남아 있는 것은 그동안 무쇠도 씹어 삼킬 것처럼 음식물을 부숴왔던 딱딱한 이빨은 하나둘 빠져 없어지고 음식물을 골고루 씹어주었던 혀만 입속에 남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정죄의 칼보다는 관용의 쿠션이 결국은 나 자신과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 요한은 그의 나이 젊었을 때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만큼 그가 성격이 급했고, 화를 잘 내었던 사람인 것 같다. 훗날 그는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요한복음과 더불어 요한일,삼서를 집필

해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일 뿐 아니라, 사랑은 신앙의 완성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교회와 공동체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죽은 종교집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사명 공동체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삼고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날 바리새인들처럼 하

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수많은 길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세마나가 있고 평가 기준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배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면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은 다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사용되는 바리새인의 율법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경청, 질문 그리고 공감하라

차세대 교사대학이 개강했다. 'Jump to Class'를 주제로 서빙고와 양재에서 4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교사대학은 전체강의와 부서별 소그룹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강의는 >경청(4/3) >질문(4/10) >공감(4/24)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정요섭 목사/코치가 강의한다. 교사들은 강의를 듣고 난 이후 짝을 지어 강의 내용을 실습하고있다. 기사도 지난 10일 '질문'을 주제로 열린 교사대학에 참석해 적절하게 질문하는 방법을 실습해왔다. 차세대에게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았다. 차세대 교사대학 마지막 강의는 공감이 주제다. 서빙고 4월 24일, 양재 4월 22일 저녁 7시30분에 진행된다.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차세대 교사대학

1. 경청

경청은 생명을 키운다. 경청의 중요한 두 요소는 자신과 상대다.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발달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공감적 경청의 일곱 가지 팀이 있다.

첫째, 눈을 맞추는 것이다.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 끄덕거리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아하~' 또는 '그렇구나, ~겠다'라는 반응이나 '~라는 말이지?', '그래서?'도 효과적인 공감적 경청 방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청을 방해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수신물의 한계, 누수현상, 한국 문화적 상황과 내 안의 소리가 그 이유이다. 수신물의 한계는 사람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말한다. 사람의 뇌는 1초에 200만 비트의 정보가 유입되고 보통사람은 그중 143비트의 정보만 처리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생각이 생략되고 왜곡되고 일반화되기도 한다.

누수현상은 커뮤니케이션의 누수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피터 생게라는 학자는 "아이큐 130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전체 아이큐는 60으로 떨어진다"며 "이런 조직은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있고, 지극히 정치적이다"고 진단했다. 즉 소통의 왜곡과 부재가 생기는 것이다.

교사들은 내용, 의도, 기분, 성격, 의미, 인정의 6단계 경청법을 통해 듣기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FEN 경청 방법도 있다. Fact(사실)과 Emotion(감정)과 Needs(욕구)를 듣는 것이다. 또한 온 몸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변화를 확인하고, 목소리를 구별하고, 손을 만져보는 것도 구별하는 방법이다. 후각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도 있고 몸동작, 표정을 읽을 수도 있다.

2. 질문

경청이 생명을 키운다면 질문은 생명을 살린다. 질문은 상상력을 일깨운다.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상상을 질문을 통해 하는 것이다. 질문하면 상상하게 되고, 머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상상력이 질문을 통해 깨어나는 것이다.

질문은 상상력을 일깨우기도 하지만 가두기도 한다. 교사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질문은 상대의 이야기로부터 나온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도 좋은 질문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내면적 변화와 저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좋은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만 묻는 것이다. 간단명료해야 하며 두 번 이상 같은 것을 묻거나 유도질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차세대 교사대학이 진행 중이다. 정요섭 목사가 '질문'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실습하고 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삶의 수준이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라빈스는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답을 얻는다. 질문은 생각의 초점을 조절하고, 그 결과 생각하는 방법과 느끼는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교사의 질문을 통해 아이들은 어떤 상상을 할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슨 상상을 하기 원하는가? 질문에는 7가지의 힘이 있다.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하면 정보를

얻는다. 질문은 대화의 방향을 만들어낸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질문은 귀 기울이게 하며, 질문에 답을 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교사들은 명확하게 상상을 건드릴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은 전략적인 질문이 되어야 하며, 생각을 여는 호기심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의 질문이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질문이 된다면,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 마지막 강의는 공감을 주제로 서빙고 4월 24일, 양재 4월 22일 저녁 7시30분에 진행된다.

4월 차세대 영역별 활동 _ “집에서 함께해주세요”

■ 영아부 '예수님은 우리의 왕'

>13일, 예수님은 우리 왕(마 21:1-17)

활동: 물병 셰이커 만들어 흔들기(빈 물병에 쌀, 돌을 넣어 흔들며 '호산나' 외침)

>20일, 다시 사신 예수님(마 27:27-28:10)

활동: 까꿍 놀이(보자기를 갖고 얼굴을 가렸다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까꿍!' 합니다)

>27일, 열 명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눅 17:11-19)

활동: 감사하기(부모가 감사 대상에 대한 수수께끼 내고 아이가 맞추면 감사인사하기)

■ 유치부 '신실하신 하나님'

>13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어요(마 21:1-17)

활동: 종려나무 찾기(종려나무가지 사진 찾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어떻게 맞이할지 이야기)

>20일, 예수님은 살아 계세요(요 20:24-31)

활동: 부활선물 만들기(예수님 그림을 막대사탕에 붙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하며 선물 전달)

>27일, 폭풍을 잠재우셨어요(마 8:23-26)

활동: 아빠와 목욕(목욕할 때 배를 만들어 뱃놀이, 풍랑 속 사람들이 어땠는지 이야기)

■ 꿈이 자라는 땅 - 도덕성 '사넛가에 심은 나무'

>13일, 지주대 세우기(창 4:3-8)

질문: 가인처럼 하나님(부모님) 말씀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 적 있나요? 그 결과는?

>20일, 부활과 생명(마 28:1-15)

질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27일, 옮겨심기(창 1:27-28, 골 3:9-10)

질문: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되는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그때 필요한 건 무엇인지?

■ 파워웨이브 - 정체성 '나? 나!'

>13일, 나, 믿음의 사람(창 22:1-19)

질문: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나요? 최근에 내가 한 '믿음의 행동'에 대해 말해보요.

>20일, 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창 28:10-22)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실까요?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격려'는 무엇인지?

>27일, 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창 50:15-22)

질문: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란 무엇인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해 보아요.

*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onnuri.org

만나고 싶습니다

일본교회에 용기주려고 일본어성경 필사(筆寫)한 최정순 권사



최정순 권사가 구약필사본을 책상에 펼쳐 놓고 수줍게 웃는다. 최 권사는 이것을 제본하여 일본 아웃리치 때 가져갈 생각이다.

일본교회에 용기를 주려고 6년 동안 일본어성경을 필사한 성도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올해로 12년째 일본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최정순 권사다. 그녀를 만나 일본어성경을 필사하게 된 이유와 필사하던

서 받은 은혜를 들어보았다.

자그마치 6년

“2009년 6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어성경을 필사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6년이다. 최 권사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 시간도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어김이 없다. 6년 동안 일본어성경을 필사한 분량이 구약만 큰 상자 하나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일본어성경 필사를 시작한 것일까. 한국어 성경도 필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필사한 내용을 제본해서 일본 아웃리치 갈 때 가져갈 거예요. 일본교회를 사랑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거든요.”

그녀의 일본 사랑이 감격스럽다. 일본어성경을 필사하면서 그녀 개인적 인신앙도 회복되었다고 한다.

“필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시어머니(현재 94세) 병간호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노후걱정, 자식들 걱정으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말)로마서 1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명색이 권사인 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때부터 일본어성경 로마서를 필사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힘들었다. 일본어성경은 글 정렬방식이 세로다. 한자와 일본고유문자 하라가나가 섞여 있다. 띄어쓰기가 없다. 눈 아프고 어지러웠다.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필사를 안 하면 안될 것 같은 부담감이 그녀를 깨웠다.

2009년 12월,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고 다시 일본어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고비도 많았어요.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발음도 어렵고 쓰기도 힘든 일본어성경을 내가 왜 쓰고 있는지, 이거 아니어도 할 것 많은데... 무수한 고비를 이겨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 주려고

일본어성경 필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최 권사는 일본 아웃리치 갈 생각에 부풀어있다. 필사한 종이를 제본해서 8월 일본 아웃리치 때 가져갈 생각이다. 한국 사람이 일본어성경을 왜 필사했다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다. 일본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최 권사는 성경필사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회복되고, 자신감도 얻었다고 고백했다. 무엇보다 일본교회를 향한 사랑을 키운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경필사를 하고 싶지만 업무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좋아하는 권(卷)부터 써 보세요. 순서대로 쓰라는 법 없고, 전체를 다 써야 한다는 법도 없어요. 나이트 나도 했는데, 젊은이들은 더 잘 하겠죠?”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찬양, 그리고 이야기

MUSIC

가사에 담긴 은혜 이상의 은혜

송명희 시인

말씀이나 기도보다 찬양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다. 가사만 읽어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찬양가사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숨어있다. 찬양가사에 숨은 사연을 알면 은혜 이상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독자들에게 권한다. 처음엔 가사만 읽어보라. 그리고 사연을 읽은 다음 다시 가사를 집중해서 읽어보라.

/ 박익새 기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의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의사의 실수로 소년이 손상된 송명희 시인.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다.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껴 사춘기에는 자살시도도 했었다.

그녀가 열일곱 살 되던 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몇 시간씩 묵숨 걸고 기도하던 그녀의 손을 잡아 주셨다. 그날 이후 그녀는 거듭남을 경험했다. 그 체험 이후 그녀가 쓴 가사다.

이후 왕성한 집필 활동과 방송 출연 등 복음 전파에 힘써왔던 송명희 시인. 결국 무리한 사역 활동으로 목디스크를 앓고, 노화현상에 이어 전신 마비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녀의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녀 생애 마지막 꿈인 장애인 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 어머니의 무릎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893년 보스턴에서 세계사역자대회가 열렸다. 집회 둘째 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던 윌리엄스 목사는 설교 내용에 맞는 찬송을 고르다가 적당한 찬송이 없자 옆에 있던 틸만 목사에게 작곡을 부탁했다. 그러자 틸만 목사는 윌리엄스 목사가 작시를 하면 자신이 곡을 지어 보겠다고 대답했다.

윌리엄스 목사는 자신의 성경을 만지작거리며 시를 써내려갔다. 그 성경은 윌리엄스 목사의 어머니가 임종할 때 물려준 것이었다. 윌리엄스 목사는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치던 모습, 성경을 읽으며 눈물 흘리던 모습을 생각하며 시를 적었다. 15분도 채 못 되어 마지막 절까지 완성했다.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시를 받아 읽던 틸만 목사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헬로맘 스쿨

성경적 태교와 양육법 배운다

임산부 스쿨과 출산 후 스쿨

여자가 결혼을 하면 제2의 인생이 열린다. 한 아이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일이라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는 더욱 그렇다.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얽매일 때가 많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태교와 육아는 엄마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엄마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헬로맘 스쿨은 엄마가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준다. 크리스천 엄마로서의 기준도 알려준다.

손경화 자매 이야기

손경화 자매(중종로공동체)는 ‘헬로맘 출산 후 스쿨’에 참여했다. 이 자매는 출산 후에 무기력증을 느꼈다. 자녀가 생겨서 기쁘다가도 몸과 마음이 자유했던 직장생활이 그리웠다. 예쁜 옷과 좋은 가방, 밥보다 비싼 커피를 마

시며 놀러 다니던 일들이 생각났다. 매일 집에 갇혀 집안일하고 아기 돌보고, 신랑 밥 차려주고... 반복되는 일상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우울할 때가 많았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댁과 충돌도 잦았다. 직장생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눈치도 보였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 헬로맘 스쿨에 참여했다.

헬로맘 스쿨은 자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지금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이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고, 수고하는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로 응원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본분임을 알게 됐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것도 깨달았다. 사회적 경력과 돈이 삶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 그녀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성경적 부모 되는 방법 배운다

헬로맘 스쿨에는 ‘임산부 스쿨’과



헬로맘 스쿨은 예비엄마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들을 위한 스쿨이다.

‘출산후스쿨’이 있다.

임산부 스쿨은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성경적인 태교법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 스쿨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세상적인 태교가 아닌 성경적 태교법을 배웠다고 고백한다. 임산부스쿨은 7주 과정이다. ‘생명의 어미 한나’, ‘엄마가 된다는 것’, ‘유태인의 태교’, ‘아기와 엄마의 건강한 수면’, ‘임신과 출산 후 마음관리’,

‘태아의 비밀’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한은경 권사(어머니학교 본부장), 이영희 원장(기도수비전센터 이사), 라엘교육연구원, 박은정 교수(사문정 신건강연구소 교육실장), 강영수 교수(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강의한다.

서빙고는 지난 11일 개강했고, 양재는 18일 개강을 앞두고 있다.

출산 후 스쿨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스쿨이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성경적 부모가 되도록 돕는다. 핵심은 부부가 하나 되도록 돕는 것이다.

스쿨이 없을 때에는 매주 금요일에 서빙고와 양재에서 정기예배를 드린다. 아이를 데리고 예배드릴 수 있다.

문의: 서빙고 010-3379-7248, 양재 010-5266-0480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성경적인 태교법

1. 아빠가 엄마의 배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주세요.
2. 한나와 같이 기도로 출산하고 육아를 준비하세요.
3.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하세요.
4.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ex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Hello mom School

성경적인 육아법

1.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아이를 바라보세요.
2. 자녀에게 부부가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3.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ex 너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
4. 충분한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주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

성경적 원리 및 모델 제시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서고, 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온누리교회에서는 가정의 회복과 가정예배부흥을 위해 다양한 가정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다. 하가훈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가정의 성경적 모델을 제시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를 깨닫도록 돕고 있다.

4주 동안(박 2일 포함) 남편과 아내의 역할, 자녀교육, 가정제도의 원리, 부부치유, 크리스천의 성생활, 남녀차이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

이 운영된다.

오는 4월 19일 양재 하가훈이 개강한다. 선착순 24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하가훈은 지금까지 약 2500쌍 이상의 부부가 참석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하가훈에서는 또 한번의 결혼서약을 하게 된다.

상반기 개강 일정

1. 수원 온누리교회
일정: 5월 24일~6월 14일
2. 부천 온누리교회
일정: 6월 21일~7월 12일

한마음정신회복예배 1주년 예배

정신질환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한 공동체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한마음정신회복예배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지난 주일(6일) 양재 온누리교회 강의동 304호에서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도도 동역해준 중보기도자들과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일 년여 동안 꾸준히 사역해온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재 한마음정신예배는 2013년 4월 7일 첫 예배를 드렸다. 10명으로 시작한 예배는 현재 구성원이 50명으로 늘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치유 받고 있다는 고백도 날로 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배를 드릴 때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마음정신예배는 달랐다. 자유가 있다. 자신이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용기도 얻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마



지난 겨울수련회를 함께한 한마음정신회복예배 공동체.

음회복예배는 소그룹 모임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양재 한마음정신예배에 가면 2~3주에 한 번씩 정신과 전문의 차경렬 집사의 정신질환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신질환의 여덟 가지 유형을 주제로 성도들이 직접 강의를 했다. 지난 2월에는 '중년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메시지 테라피 세미나가 열렸다. 250여

성도가 참여했다. 경북 포항, 충북 제천에서 온 참석자들도 있었다.

김영환 팀장(양재 한마음정신회복예배)은 “앞으로 주중에는 등산치료, 음악치료, 영화치료와 더불어 예배 안에서의 섬김 등을 통해 정신질환을 앓는 성도들이 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섬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양재 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매주 일 오전 9시 양재 햇빛트리니티 강의동 304호에서 드린다.

/ 정지은 기자 jj@onnuri.org

“내 양을 먹이라”

양재 일대일사역팀, 먹거리 자선장 양육자와 함께 오면 한 가지 무료

양재 일대일사역팀이 오늘(13일) 국내외 아웃리치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장을 연다.

이번 자선장은 ‘내 양(양)을 먹이라’를 주제로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재 지상주차장에서 진행된다. 16개 공동체 일대일 연결사역자와 여호수아공동체 일대일 리더십들이 함께한다.

특별히 이번 자선장에서는 ‘원플러스원(One Plus One)’ 행사가 진행된다. 일대일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는 확인 후 무료쿠폰(국수 교환권)을 증정한다. 현재 양육을 진행하고 있거나 일대일 양육을 완료한 동반자와 양육자가 대상이다.

/ 정지은 기자

살롬 예루살렘 2014 참가자 모집

KIBI(한·이 성경연구소)가 ‘살롬 예루살렘 2014’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를 주제로 오는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인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가 두 번

째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이재훈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한편 대회 사전공연 및 중보의 밤 행사가 오는 28일(월) 저녁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02-792-7075-6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동경 온누리, 창립 13주년

지난 주일(6일) 동경 온누리교회가 창립 13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에서 동경 온누리교회 담임 장재윤 목사는 “교회가 햇수를 더해 갈수록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회 창립 초부터 섬기고 있는 안도 카즈키 집사는 “앞으로도 동경

온누리교회가 일본 복음화의 통로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동경 온누리교회는 예배와 큐티, 일대일 모임 등을 통해 성도들이 진리와 은혜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돕고 있다.

/ 이수영 간사(동경 온누리교회)

4월 비전현금 ‘군 선교’

오늘(13일) 드리는 비전현금은 ‘군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온누리교회 군 선교팀은 세례식을 비롯해 매년 30회 이상 군부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ROTC, GOP 등지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선교팀의 비전은 65만 군 장병 60% 이상이 복음화 되는 것이다. 2010년부터는 각급 군 부대에서 전도집회와 세례식 요청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군 선교팀에서는 군 선교에 열정을 가진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3215-3214

/ 조은실 기자

53회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

4/26~27 남양주 다윗동산

제53회 성령수련회가 오는 26일(토)부터 1박2일 동안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윗동산에서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60명을 모집한다. 자녀는 동반할 수 없다. 강사는 이해영 목사다.

등록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준비물은 성경, 필기도구, 세면

도구, 편안한 복장이다.

문의: 서빙고 황보은선 권사 (011-1720-5221)

양재 김현옥 집사 (010-8955-3610)

문의: 02-792-7075-6

/ 정지은 기자

수원, 김하중 장로 초청집회

수원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대사>저자 김하중 장로를 초청해 13일과 20일 저녁 7시에 집회를 연다. 13일에는 ‘하나님의 대사’, 20일에는

‘사랑의 메신저’가 주제다.

한편, 집회 전날인 12일에는 수원 온누리교회 봄맞이 대정소를 실시한다.

/ 박원배 기자

양재 만남의 잔치

날짜 : 4월 20일 / 장소 : 드림홀(지하2층) / 시간 : 오후 3시 30분
대상 : 2014년 3월 2일-2014년 3월 31일 등록한 분

강남A 권인호 김승범 김영진	유지윤 이미희 장희란 주소희 홍은희	문덕수 박동희 오규진 오흥연 윤명옥 윤예경	과천의왕 김갑중 김지민 박종근 이승우	공정애 김은영 김종균 김태주 차은미 홍수화 황윤주	송숙영	최성원	오승환	석태월 임형미 조한옥 최조이 최주환 한명숙
강남B 고원장 김보경 김수련 김일환 박정윤	강남C 강인선 김양신 남지원 명윤희	분당A 이준석	분당B 고은영	산본안산 강명순 강선국	서초A 김복희 이종선 임제혁 홍유석	서초B 남선임 이문순	송파 김민재 김정은	양재 김민정 김영자 김이경 김진욱 김현진

Love Sonata 시모노세키 기·도·제·목
2014 REVIVAL JAPAN

- 4월 14일(월)
협력교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러브소나타에 참여하도록
- 4월 15일(화)
협력교회들을 중심으로 일본인 참가자들이 차고 넘치도록
- 4월 16일(수)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가 은혜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 4월 17일(목)
CGNTV가 좋은 무대를 세팅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도록
- 4월 18일(금)
한국인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 4월 19일(토)
시모노세키에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묶임을 받도록
- 4월 20일(일)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네팔 노방전도 후기

SNS공동체 수련회 후기

준비된 영혼들의 황금어장 ‘네팔’

/ 김숙경 권사
(새벽예배1부찬양팀)

3월 21일, 서빙고 새벽1부 찬양팀에서 한달간 네팔에 어년더 교회로 향했다.

네팔은 북한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6개의 봉우리가 있는 네팔은 불교와 힌두의 성지가 있다. 온 국토가 우상으로 덮여 있어 영적으로 숨쉬기조차 버거운 나라이다.

국토의 90%가 산간지역인 네팔은 지역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인 카투만두에 몇 개의 교회와 근래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어년더 교회는 네팔의 수도인 카투만두에서 버스로 13시간을 가야하는 작은 도시인 네팔간의 코헬벌에 지어졌다. 현지 교인들이 교회를 증축하려다 기둥만 세우고 멈춰진 것을 온 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부와 연결되어 헌금이 전달되고 완성되었다.

현당예배하며 만난 네팔인들은 예배에 열정이 있는 순수하고 마음 따뜻한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처음 들어 보는 예수님 한 분 만이 구주되심에 놀라워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기도를 했다.

그 곳의 농림부 차관급이 되는 분을 만나 복음을 전하니 바로 영접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전하겠다고 전도책자를 가져갔다. 교회에도 다니기로 약속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내가 놀랐다.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었다.

호텔리어로 일하는 예쁜 번다나에게는 바쁜 일정으로 간단히 복음을 전했다. 호텔을 떠나는 우리 일행을 쫓아 나오며 선교사와 만날 약속을 했고, 나와는 헤어지며 눈물로 글썽였다.

산골에서 만난 영특한 소년 앤젤은 영어도 잘했다. 복음을 전한 후 가게에서 과자를 사주려 하자 자기 복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극구 거절했습니다. 포카라에서의 눈망울이 맑은 12살 소녀 리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네팔에 현당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기도했다. “주님,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온누리전도족발에서 사역하며 만든 네팔어로 된 그림 전도책 200권과 전도책자 100권을 가져갔다.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네팔을 향하신 주님의 간절하심이 느껴졌다.

“네팔에 준비된 영혼들이 들관 가득 희어졌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네팔은 준비된 영혼들의 황금어장이다. 우리가 힌두문화로 찌든 그들의 영혼을 지레 두려워 할 뿐이다. 오히려 그들은 힌두라는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날을 기다리는 곡식들이다. 그래서 교회 개척도 긴급히 필요하다. 산간 지역에는 500만원으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네팔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계속된 기도와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 사역으로 쓰임 받고 있다. 네팔에서 만난 4명의 FA단기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더 많은 청년들과 교인들의 헌신이 필요한 전도 현장임을 느꼈다. 8일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팔에 씨를 뿌렸다. 계속 키우시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재미구나”

/ 이찬희 형제
(SNS공동체)

수련회 갈까 말까? 가면 뭐하지? 가도 괜찮을까?

SNS공동체 수련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조바심이 커졌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가서 혼자 적응 못하고 맴돌다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다. 누가 보면 남 앞에 서면 말 한마디 못하고 얼어붙는 성격 아니냐고 오해할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아니다. 말수가 적긴 하지만 나름 논리적으로 말하고, 위트도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수련회를 앞두고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다.

사실 나는 수련회가 처음이다. 그것도 교회 수련회라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시도하는 것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했다. 설렘다가 두려웠다. 아무튼 좋다. 초신자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겼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도전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5일, 드디어 수련회 날이 밝았다. 날씨가 좋다. 공동체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행선지로 향했다. SNS공동체 수련회 장소는 수지수양관이다. 오랜만에 야외에 나오니 상쾌함이 좋다. 아직 서먹한 지체들과 친해지기 안성맞춤이었다.

오프닝 예배로 마음을 추스르고 본당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다. 우리들의 웃음꽃이 피었다.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이어진 순서는 이영복 장로님의 강이었다. “멘토님은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멘토님의 헌신과 사랑, 청년 못지않은 열정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닦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었다.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수련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새벽까지 이어진 예배를 드린 후에 야식타임이 이어졌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번엔 이야기꽃을 피웠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귀 기울이는 모습이 좋다. 그 포근함이 참 좋다. 레크리에이션도 했다. 사람들이 수련회에 왜 오는지 알겠다. 함께 어울리며 어느새 우리는 하나가 되어있었다. 공동체 안에서의 나, 내 안에서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일과의 마무리는 기도였다. 초신자인 내게 장시간 기도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다. 어려웠다.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뜻밖의 생각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 찢찢매던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공동체 식구들은 물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구나”

잠을 청했다. 기분 좋은 불면증이 왔다. 자꾸 웃음이 나고 잠이 들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러지? 수련회 오기 전에는 두려워서 그랬다 치지만 지금은 왜 그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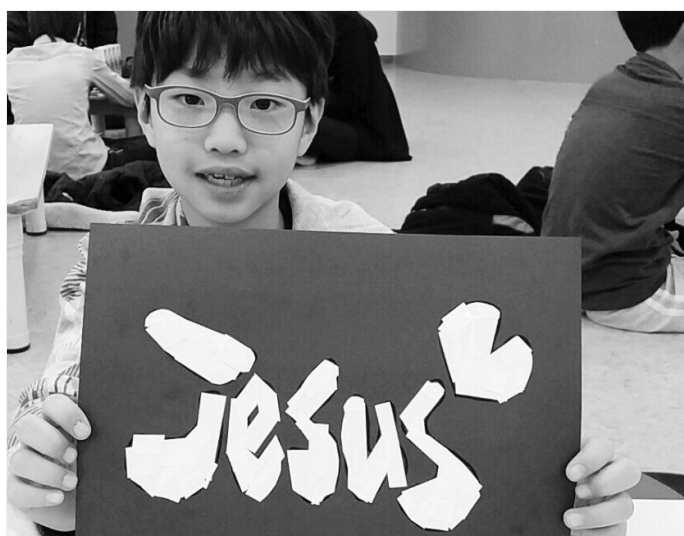
“사랑에 빠진 것이다”

SNS공동체 수련회 주제처럼 사랑에 행복 한 것이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고, 공동체 지체들과 사랑에 빠졌다.

난생 처음 온 수련회에서 잊지 못할 감정을 선물 받았다. 영원히 색이 바라지 않는 그 사랑 속에서 머물고 싶다.

SNS공동체 지체님들 사랑합니다!

내가 만든 작품



차세대 키즈모닝 프로그램에서 아광 글자를 만들었다. 차세대 임주찬 학생이(초등1부) 사울과 신접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읽고 감감한 곳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의미로 만들었다.





차세대 김정순 목사의
“Good Enough Parents”

연재순서 : 사랑과 자존감 | 아이의 자율성과 창의성 | 자녀의 강점 관찰 | 소우가 아닌 존재 인식

자녀의 강점 관찰

에릭 에릭슨은 그의 글 ‘인간의 강점과 세대의 주기’에서 생애주기이론의 도덕적 차원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그는 생애주기 8단계에 상응하는 덕목의 스케줄을 제안했다. 그것은 소망(기분적 신뢰 대 기본적인 불신), 의지(자율성 대 수치감 및 의심), 목적(주도성 대 죄책감), 실력(근면성 대 열등감), 신실(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 사랑(친밀감 대 소외감), 돌봄(생산성 대 침체성), 지혜(자아통합 대 절망감 및 혐오감)이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적 덕목들과 유사하다. 에릭슨은 이러한 덕목들을 정적인 특성들(static traits)로 보지 않고 만남 속에서 개발되는 본래적인 강점으로 보았다. 그것들은 사람들이나 사회기관들, 특히 각 발달 단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살아나고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다. 어머니는 소망을, 부모는 의지를, 가족은 목표를, 학교는 실력을, 또래집단은 신실을, 배우자와 친구들은 사랑을, 어린이와 청소년과 초기 성인은 돌봄을, 삶의 전통들은 지혜를 불러일으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프린스턴대학교 목회신학교수 도널드 캡스는 에릭슨의 8단계에 덕목에 대응하는 악덕을 단계적으로 탐식, 분노 탐욕, 시기, 교만, 정욕, 무관심, 우울증으로 구분하였다. 부모는 덕목과 악덕 사이에서 혼돈과 갈등과 자신의 틀로 자녀들과 매일 씨름하며 다투면서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보화를 찾기 위해 철저한 관찰자여야 한다.

하버드대학교의 발달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하여 “교육이란 누구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재능을 잘 발휘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3년 ‘정신구조: 다중지능이론’에서 인간은 한 가지 재능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지능을 타고난다고 보았다. 그것을 언어,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음악, 대인관계, 자기 이해, 자연친화 등 8개 지능유형으로 분류했다. IQ 검사만

으로 인간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 재능은 지능이 조합되면서 발현된다고 주장했다. 학업과 관련이 깊은 이 지능들이 낳다는 이유로 낙담하게 되면 다른 지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시대는 IQ수보다 어떤 재능을 강점으로 가지고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시대다. 내 자녀가 타고난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 그것을 돕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 천재의 개념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천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니까 아이들과 부모 모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재능과 개성에 따라 아이들의 자율적인 생각을 먼저 인정해 준다면 부모와 자녀사이는 천국이 된다. 기업에서도 이런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접근하고 인성을 인정해서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우선하는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아이들의 강점을 관찰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관찰자인 부모에게 특히 요구되는 것이 객관성이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에 맡겨 놓은 보화(재능)들을 늦지 않게 발견하고 잘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만12세까지 정서적으로는 ‘사랑과 신뢰’를, 영적으로는 ‘믿음’을 심어 놓아야 한다. 유대인은 만 12세가 지나면 성인식을 해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인식시킨다. 부모가 자녀들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방향성을 상담해주는 코치나 지지자가 될 때 자녀들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한다. 꿈을 향해 자라게 되어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너무 아리게 본다. 다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강점을 무시하고, 부모의 생각을 심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인 강점을 심어 놓으셨다. 부모는 환경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관찰하고, 미래를 축복하고, 기다려주는 존재이다.



선교지 이야기
노규석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아라비아 백성들을 섬기는 오아시스 병원

아라비아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교화가 없는 지역이다. 선교사가 가장 적고 현지인의 복음화율이 거의 0% 수준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만큼이나 믿음을 가진 이들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을 통해 이미 복음을 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3년간 아라비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 초대 교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일어난 무함마드와 이슬람 군대로 말미암아 지난 1400년간 교회가 파괴됐다.

1960년대 UAE에서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은 매우 가난하고 척박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서 유아 사망률이 50%에 이르렀다. 약 35% 산모들이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해 11월, 미국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닉터 팻(Pat)과 마리안 켄네디(Marian Kennedy) 가족이 아부다비의 통치자였던 자이드(Zayed)의 초청으로 알 아인(Al Ain)이라는 오아시스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보건소를 세우고 아라비아 백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1962년에는 캐나다 선교사인 게르트루드 디크(Gertrude Dyck) 여자 간호사가 이 병원에서 38년간 산파로 일하며 약 9만 명의 아기들의 탄생을 도왔다. 수많은 왕실의 아기들과 산모들이 이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 돌봄을 받았다. 그는 UAE 사람들과부터 ‘자비의 의사’, ‘사랑받는 만인의 어머니’라는 극찬을 들으며 사랑을 받았다.

선교사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수많은 아기들과 산모들의 생명을 건졌다. UAE의 유아 사망률은 1%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됐다. 오아시스 병원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감사히 여긴 자이드(Zayed) 대통령은 병원 내에 교회를 세워주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 비록 외국인들이 예배드리고 교회이지만, 공식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됐다. 또한 아랍어 성경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DVD를 각 병실마다 비치해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듯 병원과 교회가 아라비아 반도와 이 땅의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쓰임 받고 있다. 50년이 지난 오늘날, UAE의 각 도시마다 수십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온-누리에서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UAE에서 공식적으로 목회자 비자를 받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필자 역시 오아시스 병원의 선배 선교사들 덕분이다. 아부다비 온누리가 오아시스 병원의 귀한 선교사들처럼, 아라비아 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쓰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아라비아 반도와 중동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쓰임 받도록 온누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장로 순환칼럼 김성진 장로(월요치유집회)

“말씀에 순종하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지만 결혼을 한 뒤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주일 성수만 간신히 지켰다. 어릴 적 내가 교회에 간 이유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교회에서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면 한 주일 동안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명된 친구가 찾아왔다. 그 친구가 소속된 학교는 대학교회를 섬기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그 친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 친구가 매주 교회에 나가는 나를 찾아왔다. 믿음이 좋다고 여긴 것이다.

그 친구와 상담을 하던 중 내가 제안을 하나 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려면 보여 달라고 요청해 보자고 제안했다.

2개월 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엘리베이터 안이었다. 분명 나 혼자였는데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가 있었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다음날부터 삶이 변화됐다. 세상에 빠져 있던 삶이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새벽예배를 드리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인도까지 하게 되었다. 2007년 두 번째 변화가 찾아왔다.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이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들 모두 일어나라고 하셨다. 그러곤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 그 순간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다른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화개했다. 하 목사님이 이번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하셨다. 그때는 모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 순간 내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다.

장로로 장립된 이후에도 내 신앙은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신앙이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십자가 위로 오르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전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너도 사랑해 주지 않겠나?”
월요치유집회를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전세계를 다니며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내 몸은 주님의 앞제 앞에 떨렸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하지만 즉시 순종할 수 없었다.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해외에서까지 사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분명했다.

말씀에 순종해 결단하기까지 4일이 걸렸다. 눈물로 기도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해 12월 하용조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다. 월요치유집회를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2008년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인도하기 시작한 월요치유집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산, 포항, 담양, 곡성, 대전 등 전국 각지와 일본, 미국, 네덜란드,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수십 차례 성령집회를 인도했다. 의술로 치유가 불가능한 수많은 사람들을 건게 하였고, 말하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신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향유를 붓는 사랑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 값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41~42절).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감격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47절).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고 받아주셨을 때 가치가 교환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던 여인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고귀한 가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거기에서 가치가 생겨납니다. 어떤 것들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 어떤 것들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여행갈 때도 가지고 갑니다. 그 인형을 돈으로 환산하면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에게 그 인형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치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치 없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십니다. 사람들에게 없는 사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는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가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것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가치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문둥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문둥병자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문둥병자들이 받은 세상의 평가를 끌어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붙은 가격표입니까. 우리의 직업 때문에 생긴 가치입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때문에 생긴 가치입니까. 외모나 건강 때문에 생긴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매겨진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버려졌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그 여인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옥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로잡히는 것이고, 휩싸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빠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휩싸였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은 자랍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스펠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생명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또 불과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의 열기가 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세게 일어나 강렬한 열기를 뿜어 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여름을 맞기도 하고 겨울을 맞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밀물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썰물처럼 빠져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그라지고 있습니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도 큰 사랑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4년 아이스쿨 강좌안내

<서빙고>

온누리예배학교 서빙고 1기

학습기간 : 04-13 ~ 05-11

일정: 매주 주일 오후 4:00 ~ 6:00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

문의: 010-3735-8824

Basic QT 26기 주일오전반

학습기간: 04-13 ~ 04-27

일정: 매주 주일 오전 9:00 ~ 10: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10-3199-2769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중급)

학습기간 : 04-15 ~ 05-13

일정: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9:00

장소: 서빙고 꿈터

문의: 010-9267-7123

제 53회 온누리교회 성령수련회

강사: 이해영 목사

일시: 4월 26일(토)~27일(주일) 1박 2일

장소: 다윗동산

모집인원: 60명

회비 : 4만원(하나은행 573-910005-39805 예

금주 성령수련회) 입금 후 전화요망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편안한 복장

문의 : 황보은선 권사 011-1720-5221(서빙고)

김현옥 집사 010-8955-3610 (양재)

OBC 로마서 서빙고 한강

학습기간: 04-28 ~ 06-23

일정: 매주 월요일 오후 7:30 ~ 10:00

장소: 서빙고 드림홀

문의: 010-6230-3966

OBC 요한복음 화 저녁

학습기간: 04-29 ~ 06-24

일정: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10:00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5249-9024

OBC 하나님의 성품 화 오전

학습기간: 04-29 ~ 06-24

일정: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2:30

장소: 서빙고 EM전시관

문의: 010-5249-9024

OBC 로마서 목 오전

학습기간: 05-01 ~ 06-19

일정: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12:30

장소: 서빙고 EM전시관

문의: 010-8627-2098

OBC 로마서 목 저녁

학습기간: 05-01 ~ 06-19

일정: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10:00

장소: 서빙고 EM전시관

문의: 010-8627-2098

온누리내적치유학교 44기

학습기간: 05-09 ~ 05-11

일정: 금요일 오전 11:00 ~ 일요일 오후 2:00

장소: 파주 제자교회 수양관

문의: 팀장 김이준 010-5543-8002

온누리 바이بل 클럽OBC 로마서

서빙고 일산

학습기간: 05-10 ~ 07-05

일정: 매주 토요일 오후 8:30 ~ 10:30

장소: 일산비전센터

문의: 010-6231-4579

Basic QT 28기 주일오전반

학습기간: 05-11 ~ 05-25

일정: 매주 주일 오전 9:00 ~ 10:30

장소: 서빙고 101호

문의: 010-3199-2769

Basic QT - 서빙고 관악금천

학습기간: 05-13 ~ 06-03

일정: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서빙고 신관 402호

문의: 010-8800-7930

Basic QT 29기 화요일오전반

학습기간: 05-13 ~ 05-27

일정: 매주 화요일 오후 3:00 ~ 5:00

장소: 서빙고 선교관 301호

문의: 010-3199-2769

<양재>

제102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양재 18기)

학습기간: 04-19 ~ 05-17

일정: 토요일 오후 3:00 ~ 일요일 오후 6:00,

4주(토 10:00~17:00),

장소: 양재 화평홀, 광림수도원

문의: 010-4117-0455

OBC 갈라디아서, 양재 특별한초대

학습기간: 04-23 ~ 06-11

일정: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9:30

장소: 양재 두란노홀

문의: 02-570-7447

온누리 바이بل 클럽OBC 로마서

양재 강남C

학습기간: 04-27 ~ 06-05

일정: 매주 주일 오후 2:00 ~ 4:00

장소: 도곡 온유홀

문의: 02-570-7447

OBC 로마서, 양재 분당A

학습기간: 05-01 ~ 06-19

일정: 매주 목요일 오후 8:00 ~ 10:00

장소: 분당 순병원

문의: 010-8225-0164

OBC 요한복음, 양재 송파

학습기간: 05-07 ~ 07-16

일정: 매주 수요일 저녁 7:00 ~ 9:30

장소: 도곡 화평홀

문의: 이기용 집사 010-7687-0078

OBC 하나님의 성품, 양재 안양평촌

학습기간: 05-08 ~ 06-26

일정: 매주 목요일 오후 8:00 ~ 10:00

장소: 과천 문화원

문의: 02-570-7447

<강동>

Basic QT - 강동

학습기간: 05-10 ~ 06-07

일정: 매주 토요일 오전 7:30 ~ 9:30

장소: 강동 11층 두란노홀

문의: 02-475-9686

OBC 하나님의 성품, 강동

학습기간: 05-11 ~ 06-29

일정: 매주 주일 오후 2:00 ~ 4:00

장소: 강동 11층 두란노홀

문의: 02-475-9686

<양지>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양재기

학습기간: 05-11 ~ 06-22

일정: 매주 주일 오후 2:30 ~ 5:30

장소: 양지 온누리

문의: 02-3215-3644